

이야기 10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제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39]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걱정했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간 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처럼 희었어요. 군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땅에 쓰러졌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기쁨과 놀라움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평안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 주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직접 드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그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빈칸을 채운 뒤 암송해 보세요. (누가복음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_____ 또 나를 만져 보라
_____ 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활동 1

다음 질문들을 읽고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1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했나요?

2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셋째 날 아침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러 갔나요?

3 누가복음 24: 46-49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의 증인이었나요?

4 무덤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을 완성하세요.



활동 2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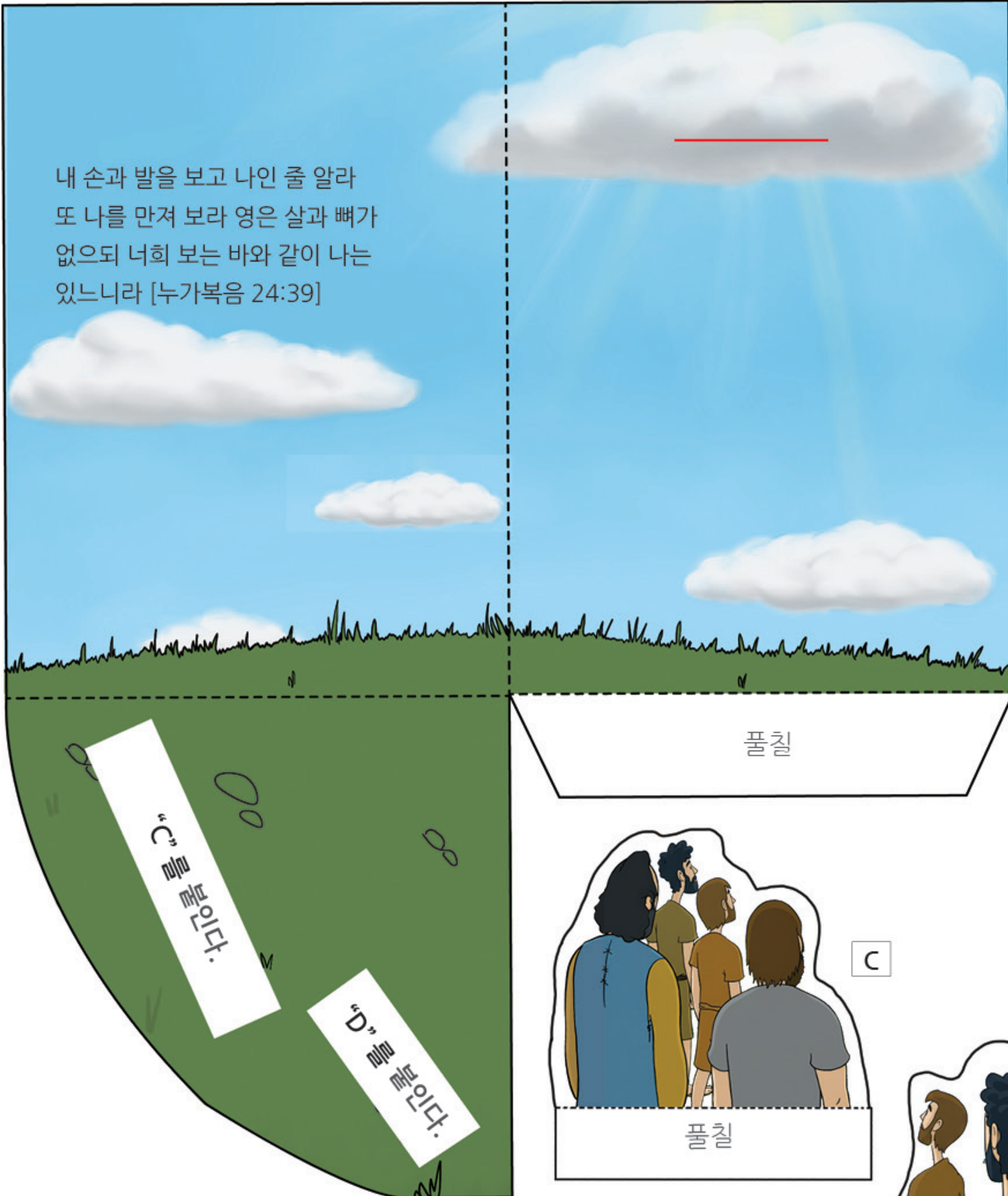
가위, 칼(칼은 선생님만 사용한다.)

- 1 "A", "B", "C", "D" 조각을 오린다.
- 2 "A" 조각 위 빨간선을 따라 자른다.
- 3 점선을 따라 접는다. 4 "A"의 풀칠 부분에 풀을 바르고 모양을 만들어 붙인다.
- 5 "C"와 "D"를 알맞은 위치에 붙인다.
- 6 이미 오린 "B" 조각을 빨간선으로 잘라둔 "A" 조각 틈에 넣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표현한다.
- 7 적혀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본다.
- 8 원하는 곳에 세워두고, 배운 말씀을 기억한다.



완성된 이미지

A



B



